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박 성 희**
박 정 선

- I. 서론
- II. 연구결과의 요약
- III. 청소년 통일의식의 일반적인 경향
- IV. 제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45년 민족의 분단이후 지난 반 세기동안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으로 존재해 왔으며,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며 사명으로서 꾸준히 강조되고 추구되어 왔다. 모든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항상 관심을 갖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체험한 남북한간에는 극복해야 할 분단의 골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남북통일 문제는 단 시간에 손쉽게 해결되지 않을 장기적인 민족의 문

제로서 8·15해방이나 6·25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의 생애에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남북통일 문제는 기성세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 의해 좌우되게 될 것이다. 즉, 현장의 중심세대는 물러서고 오늘의 청소년들이 통일문제를 계승하여 결정하고 통일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청소년들은 통일의 새 역사를 펼칠 통일승계세대로서 민족통일을 위한 역사적 사명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그동안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청소년들의 역할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배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고, 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통일문제가 기성세대만을 중심으로 논의됨으로써 통일승계세대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극히 미약하여 청소년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당히 소홀히

* 이 논문은 본 개발원의 1992년도 연구사업인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방안을 위한 기초조사”을 요약한 것임.

** 공동연구자는 본 개발원의 박성희(선입연구원), 박정선(연구원)임.

다루어져 오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또는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연구의 한 부분으로서만 단편적으로 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거의 없이 아직까지 극히 미약하며 초보적인 단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청소년들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들이 어떤 통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것은 민족통일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급선무이고 기본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즉 통일에 대한 가치, 태도, 인식 등을 실질적인 조사를 통하여 폭넓게 파악하여 그 문제점과 시사점을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정립시키고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반 연구의 한 부분이나 단편으로 또는 한정된 지역의 특정 청소년만을 다루어 온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청소년만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통일의식을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분석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구조를 알아 보기 위해서 문헌연구와 설문지조사를 주로 활용하였다.

1) 문헌 연구

문헌 연구방법은 통일의식의 개념 및 일반적

성격, 그리고 종래에 지적되어 온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 및 북한에 관련된 연구논문, 관계문헌, 관계학술지 등 선행 연구물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개념모형 설정, 질문지 내용작성 그리고 청소년들의 의식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2) 설문지 조사연구

설문지 조사방법은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연구도구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조사 내용과 설문 내용 : 통일관, 북한관,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세분해 보면 먼저, 통일관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방법, 통일의 선결과제, 통일국가의 미래상,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통일 문제의 논의방식,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인식으로 나누어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관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인지,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은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참가의사 및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류활동으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 선정 : 조사 대상은 중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학생청소년 집단으로서 표본의 크기를 4,000명 정도로 선정된 뒤 성별, 학교급별, 지역별, 지역규모별, 학년별, 인문과 실업계별 등의 변인들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 수를 균등하게 선정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후 학생청소년들을 학교단위로 할당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가능한 많은 학교가 안배되도록 유의하여 한 학교에 한 학급만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는 한국교육

연감 부록 『교육명부』(1991)에 의거하여 임의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 전국에 산재한 82개교(24개교의 중학교, 27개교의 고등학교, 그리고 32개교의 대학교)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3,862명의 자료로 전체적으로 약 96.6%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회수된 자료의 오류검토 작업을 통하여 3,802명의 자료만을 실제로 분석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자료처리 :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구체적으로 활용된 분석방법은 단순빈도분석법과 변량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단순빈도분석결과를 통하여 각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경향을 살펴보고, 변량분석방법에 의한 결과 자료를 통하여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응답 경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 및 제시방법은 전체 및 배경변인별 각 집단에 백분율(%)을 가지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경향을 파악하였다. 배경변인별 분석은 성별, 학교수준별, 주거지별, 지역규모별, 생활수준별, 실향민 여부별로 하였으며,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차에 대한 유의도 검증은 F검증을 실시하였다.

II.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통일관

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는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1.1%만이 통일에 어느 정도(‘매우’ 또는 ‘약간’) 관심을 가지

고 있고 8.2%만이 친구나 가족 등 주위 사람들과 통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 통일의 당위성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이 무척 희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9.4%만이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이들 중 33.5%(전체 응답자의 약 13.2%)만이 통일의 근거를 ‘같은 민족’이라는 당위적인 논리에 두고 있다. 그러나 72.1%가 ‘통일이 언젠가는 될 것이다’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3) 통일의 방법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 평화적이고 지주적인 통일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87.8%가 통일의 주체는 세계강대국이나 남북한 어느 한 정부가 아닌 ‘남북한 민족 전체’임을 자각하고 있다. 또, 91.8%가 전쟁이나 다른 방안에 의한 조급한 통일보다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원하고 있다.

4) 통일의 선결과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통일은 남북한 민족 전체의 책임으로 민족 전체의 자각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 주체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90.9%가 통일이 되지 않은 책임을 ‘우리 민족 자체 ; 즉 남북한 당사자에 있음을 인식하여 통일의 장애요인을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민족의 내부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 또한 61.1%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선결과제로 남북한 어느 한 쪽이나 외국의 도움 또는 협조가 아닌 남북한의 공동 협조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상호교류’와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을 들고 있다.

5) 통일국가의 미래상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통일국가의 이상형으로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단일주권국가’를 가장 선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2.3%가 ‘남북한이 하나의 단일주권국가로서 민족·사회·문화적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서 통일이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79.6%가 통일국가의 체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또한 74.9%가 통일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등의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6)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남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기대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42.8%, 32.3%가 남북한이 각각 제안하는 통일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정확히’ 또는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방안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청소년(전체의 약 30.0% 정도)들 중에도 42.2%가 남북한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 평가에서 ‘양측 모두 불가능 또는 가능’이라는 판단미정의 중립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실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훨씬 낮은 약 20.0% 내외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대다수의 청소년

들의 남북한 통일방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1.1%가 남북한 통일방안 모두를, 37.1%가 현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7) 통일문제의 논의방식

통일문제는 민족적 과제로서 통일문제의 논의는 전 국민의 합의속에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청소년들은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46.6%가 현재 전개되고 있는 통일문제 논의가 정부의 독점에 의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92.6%의 절대 다수가 정부나 전문가 등 기존의 통일논의의 주도집단에 강한 불신감을 보이면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통일논의의 제한범위에서 벗어나서 국민에게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자유로운 통일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8)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인식

청소년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부족하나 통일 주역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통일문제 해결에 직접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청소년들은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78.5%(‘모든 국민’, 45.4%; ‘청소년세대’, 33.1%)가 ‘청소년 자신’들을 통일 주도세대로 보고 있고, 76.8%가 청소년도 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어느 정도(‘충분히’ 또는 ‘다소’)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70.5%가 남북한 대학생들이 직접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자 하는 시도를 어느 정도(‘매우’ 또는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북한관

1) 북한에 대한 관심

통일문제에 대한 극히 낮은 관심도에 비해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호기심은 무척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70.7%가 북한 영화가 상영된다면 ‘반드시’ 또는 ‘가능한’ 보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91.7%가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제일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백두산(32.3%)’, ‘금강산(18.3%)’, ‘평양(11.8%)’ 등의 북한의 상징장소나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현장(14.2%)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2) 북한에 대한 의지

북한에 대한 인지도와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17.2%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많이(‘매우’ 또는 ‘약간’) 알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고, 65.0%가 북한에 관련된 지식을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주로 얻고 있다. 그리고 61.5%가 자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가 북한 실상과 다소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3)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은 북한을 ‘민족의 일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소수의 청소년(북한에 대한 첫인상, 2.7% :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22.9%)들만이 북한을 통일을 해야 할 ‘우리 민족의 일부’로 인식하

고 있다. 게다가, 극소수의 청소년(북한에 대한 첫인상, 1.7% :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3.8%)만이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절대 다수의 청소년(88.1%)들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다.

4)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청소년의 민족공동체 의식은 상당히 희박해져 있으며, 청소년의 일반적인 의식과 행동화된 감정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조차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적고 거리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민족의식이 행동화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라는 양립되는 상황이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에서 강한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49.9%가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고, 26.7%가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으며, 27.0%가 외국에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동포로서 적극적으로 환대하겠다’는 적극적인 대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72.2%가 북한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강한 동족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3. 남북한 청소년 교류관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무척 높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무척 낮고, 교류활동에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도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86.9%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72.5%가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남북한 청소년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16.5%만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전개되면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참여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Ⅲ. 청소년 통일의식의 일반적인 경향

본 연구의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그 가운데에서 두드러지게 특기할 만한 전체적인 성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일의지의 약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통일과 분단현실에 대한 무관심 또는 소극적인 태도로 분단체제의 고착화를 현실적으로 묵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절대 다수의 청소년(68.9%, 91.8%)들이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일상생활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절대 다수의 청소년(약 80.0%)들이 남북한 통일방안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인 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62.3%)들이 ‘단일주권국가’의 형태를 통일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으나, 현재 남북한간의 극단적인 대립·경쟁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통일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의미하는 ‘상호교류나 평화공존(33.3%)’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과반수 미만(39.4%)의 청소년들만이 ‘통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일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여주고, 대다수는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방관적

인 태도, 또는 분단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통일보다는 분단체제를 현실로서 인정하고 그대로 안착하고자 하는 경향이 청소년들의 의식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북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반 세기에 걸친 민족분단의 결과로서 청소년들은 북한 사회를 그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없이 감정적인 차원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북한을 단일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소수(북한의 첫인상, 2.7% : 북한 사회의 인식, 36.0%)에 불과하다. 또한 주체사상이 강한 민족자주국가, 순수한 우리말, 단결력, 규칙·질서, 아름다운 강산 등 북한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는 청소년(1.7%~3.8%)들도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김일성의 우상화, 세습체제, 일당독재체제 등 김일성과 북한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인식(44.6%)과 북한의 군사관련 문제에 따른 적대감(10.0%)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생활을 주로 공산당의 통제와 감시속에서 자유가 없는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생활, 혹은 헐벗고 굶주린 비인간적인 생활(북한의 첫인상, 16.6% : 북한의 사회의 인식, 53.1%)등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평가에 있어서 남한의 통일방안(53.0%)이 북한의 통일방안(4.7%)보다 훨씬 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통일이 되지 않는 책임을 남한(2.3%)보다 북한(13.0%)에 더 많이 돌림으로써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청소년들의 의식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분단체제에서 태어나 민족적 동질성과 일체감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질적인 체제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희박해져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3.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 약화

청소년들은 ‘단일민족이므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통일이라는 절대적인 목표 그 자체에 무리하게 집착하는 것보다는 남북한이 별개의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는 현 분단체제 속에서의 한 민족간의 만남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은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소년(전체의 39.4%) 중에서 통일의 근거를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당위적인 논리에 두고 있는 청소년은 소수(33.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불행과 고통의 해소(34.8%)’ 또는 ‘민족번영의 기쁨(30.3%)’ 등 현실적인 욕구(65.1%)에 두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소년(전체의 39.4%) 중의 33.4%, 즉 전체 대상 청소년중 약 13.2%만이 통일의 근거를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사적 정통성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사회를 ‘같은 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36.0%)들이 어느 정도 있으나, 이러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은 22.9%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현재의 분단체제를 인정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 전개의 근거로써 통일(36.0%)보다 ‘통일과 상관없이 한 민족 한 형제이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같은 민족간의 만남 그 자체(50.9%)에 두고 있다.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한 극히 낮은 관심(31.1%)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70.7%~91.7%)을 보임으로써 통일이라는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더라도 즉, 현 분단체제가 지속되더라도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사회를 알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나 북한 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 의식은 반드시 민족적 당위성에 입각한 통일의지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민족 통일이라는 민족적 당위성의 개념이 청소년들에게 무척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관념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외식

통일은 명분의 세계에서만 민족적 염원이요 과제로 강조될 뿐이지 실제로 청소년들의 가슴에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60.6%)들이 통일을 반드시 꼭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일의 시기(58.5%)를 멀리 장기적으로 본다든지, 미래세대(14.5%)를 통일의 주역으로 봄으로써 통일을 가까운 장래의 자신의 문제가 아닌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먼 장래의 초현실적인 문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통일의 문제를 관념적으로만 인식함으로써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인식과 행동의 연계성이 미약하며 통일에 관련된 제 문제들에 대해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31.1%)과 의지(39.4%)는 매우 낮으나, 통일의 가능성(72.1%)은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86.9%)과 그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72.5%)에도 불구하고, 교류활동에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호응과 태도(16.5%)는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국가가 아닌 자신의 문제와 연관하여 볼 때,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약 과반수 정도(49.4%)의 청소년들이 북한 주민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을 느끼고 있으나, 26.7%만이 북한 주민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으며, 27.0%만이 북한 주민을 동포로서 적극적으로 환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감을 가진다는 점은 청소년들이 민족공동체 의식을 감정적인 차원이 아닌 관념적인 차원에서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북한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면서,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에서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밀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민족적 동질성과 일체감을 몸소 체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은 통일문제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만 인식하여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행동화되지 못한 채 공리공론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5.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통일관련 문제들에 대해 유보적인 또는 방관적인 태도를 많이 취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해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관이 뚜렷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관심 및 북한관련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보통이다’라는 애매한 태도(54.1%, 63.5%)가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이나 지식의 정도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또한 남북한 통일방안의 실현 가능성에서 ‘남북한 통일방안 모두 실현가능’ 또는 ‘불가능’하다는 중립적인 태도(42.2%)가 높게 나타나고, 소수이지만 ‘통일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상관없다’는 통일에 대한 방관적인 태도(8.7%)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통일의 가능성과 통일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8.2%, 11.9%)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 영화 관람 의사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23.1%)’와 북한 주민과 청소년에 대한 대면 태도를 ‘만나봐야 안다(26.7%)’,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시 ‘상황에 따라 응원하겠다(14.9%)’ 등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를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신이 접하고 있는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가 북한의 실상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청소년(18.0%)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이나 애매한 유보적인 태도는 통일이나 민족공동체 의식과 같은 ‘이상’과 분단에 따른 이질화가 존재해 있는 냉랭한 ‘현실’사이의 갈등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단체제를 현실적으로 목인하려는 안일한 경향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6.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높은 비판의식

청소년들은 그동안 안보적인 이유로 통일문제의 접근에 많은 한계를 그어왔던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보이면서 통일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다.

대체로 남한의 통일방안(53.0%)이 북한의 통일방안(4.7%)보다 훨씬 더 실현가능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남한의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해석될 수 있는 ‘북한의 통일방안이 실현가능하다(4.7%)’와 ‘남북한 방안 모두 실현 불가능하다(21.1%)’는 청소년(25.8%)들도 상당히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정부의 창구 단일화를 통한 통일문제의 독점(46.6%)과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통일문제 논의(92.6%)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민학교때부터 실시되어 온 통일교육에도 불구하고 북한관련 지식의 획득원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의존도(20.6%)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는 학교교육 내용에 대한 불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61.5%)들이 자신들이 획득하고 있는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가 북한의 실상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의 내용 그 자체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다. 이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연구자료에의 접근에 많이 제약해 왔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한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그동안의 정부주도의 통일문제 논의가 일반 국민과 너무나 동떨어진 폐쇄적이었던 정부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7. 통일문제에 대한 진보적 온건주의 경향

청소년들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극단적인 방법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급진적인 통일논의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절대 다수의 청소년(91.8%)들이 통일의 방법에서 전쟁이나 다른 방안에 의한 ‘무조건적인’ 또는 ‘조급한’ 통일보다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더 선호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의 시기

를 가까운 시기(13.6%)보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58.5%)로 더 많이 봄으로써 통일의 시기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일국가의 체제이념으로써 ‘공산주의체제(0.7%)’, ‘남북한 혼합절충체제(16.3%)’, ‘어느 체제도 무방하다(3.1%)’등 다른 어떤 체제(20.1%)보다, ‘자유민주주의체제(79.6%)’를 더 선호함으로써 이념을 초월하는 통일이라는 절대적인 목표가치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에 더 강한 관심과 애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청소년(92.6%)들이 국민에게 개방된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원하고 있으나, 이 통일논의가 국익(34.9%)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3.2%)의 범위내에서 조건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가진 청소년(37.1%)들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현실에 대단히 불만족하여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는 급진주의 대신, 기존의 체계내에서 안정된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적 온건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8. 통일문제에 대한 반외세 민족주의 경향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민족 주체성에 입각하여 통일은 외세의존성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자주적 통일 성취의 의지가 청소년들 사이에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절대 다수의 청소년(87.8%)들이 통일의 주체를 세계강대국이 아닌 남북한 우리 민족 전체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통일을 민족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외부가 아닌 민족의 내부적인 요인(90.0%)에서 찾고 있으며, 외국의 도움이나 협조없이 남북한의 공동협조와 노력(60.1%)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또

한 비록 소수이지만, 이념보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국제정세속에서 통일문제를 민주주의라는 서구의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민족적 욕구에서 ‘남북한 혼합절충체제’를 통일국가의 이념체제로 선호하는 청소년(16.3%)들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청소년(72.7%)들이 북한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 북한을 응원하겠다고는 강한 민족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의지에 비해, 통일의 민족 주체성에 대한 강한 인식을 이례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외세에 의해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어 왔던 민족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반외세적인 경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통일문제를 민족 전체의 자각으로 민족 전체의 단합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역량에 의해 해결해 나가자 하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청소년들의 의식속에 강하게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한 통일 논의

청소년들은 통일문제는 어느 세대의 전유물이거나 한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전국민의 운명이 달린 민족적 과제로서 개개의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전체 국민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과반수에 해당하는 청소년(45.4%)들이 ‘모든 국민’이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60.3%)들은 현 통일문제 논의가 정부(46.6%) 그리고 기성세대(13.7%)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절대 다수(92.6%)가 통일논의가 현재의 제한범위에서 벗

어나 전국민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결국 통일논의는 전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합의속에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청소년들의 의식 저변에 강하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10. 통일승계세대로서 청소년

통일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의지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통일승계세대로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45.4%)’ 또는 ‘청소년 세대(33.1%)’를 통일의 주역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76.8%)들도 통일에 기여할 능력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많은 청소년(71.0%)들은 ‘남북한 학생회담 추진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여 통일문제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청소년들은 통일의 주역으로 자신들의 역할과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여 통일문제 해결에 직접 공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그동안 통일문제를 주도한 분단전 세대인 ‘기성세대(7.0%)’를 제치고 분단 후 세대인 ‘청소년(33.1%)’ 또는 ‘미래세대(14.5%)’를 통일문제 해결의 새로운 주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때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던 ‘남북한 학생회담 추진운동’은 많은 청소년(71.0%)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식의 틀로부터 벗어나 변화와 진보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시대적

인 전환기와 더불어 통일문제를 진단하는 의식속에서의 세대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IV. 제 언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외식을 정립시키고 통일승계세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1.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일견 막연하게 보이는 통일문제를 모든 국민이 함께 공감하여 보다 큰 관심을 갖고 통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풍토와 분위기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통일은 내일이나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세대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서 실제 몸으로 감정적인 차원에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단의 현실 및 통일관련 문제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민족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적극적인 통일외식을 가질 수 있는 보다 설득력있는 적극적인 통일외식을 가질 수 있는 보다 설득력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2. 통일지향적인 교육

안보외식과 이념교육의 중심의 분단체제 지향

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통일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의지 및 사명감 등 정의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통일에 대한 태도나 의식의 밑바탕이 되는 체계적인 지식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현행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튼튼한 지식의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통일외식 및 태도가 형성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통일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남북한 통일에 관련된 제 문제들을 보다 정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통일이 단순히 두 개의 정부통합이라는 제도적인 의미 이전에 민족사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의 발전 즉, 당위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일을 강조하여 통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실정을 감춘다든가 축소평가를 하거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흑평을 하여 단지 경계와 적대외식을 일으키는 감정적인 차원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실정 그대로 가르치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객관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중심의 교사 주도적 수업식 강의가 주가 되고 있는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교육내용을 TV, 슬라이드, VTR, 사진 등 다양한 시청각기재를 통해 현실감각을 높임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력을 갖추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지적 요소를 바탕으로 감정과 의지를 강화하여 인식을 행동화하는데 명확한 주관을 가지

고 적극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입시위주의 교과과정에서 뒤로 밀린 통일교육의 교과목을 보완하고 격상하여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3.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성

통일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회적 환경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일관된 작업으로 연속성이 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을 학교교육보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더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있어서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서로 일치되고 합리적인 상호연관성과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화, 적대화 현상을 극복하고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회복하여 민족공동체로서 '우리'라는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 국토순례대행진, 유적지 및 명승지 답사, 그리고 음악·미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북한을 직접 방문하고 북한 주민과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접촉함으로써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형성된 단일민족 의식을 실제 몸으로 절실히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5.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활동의 활성화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설득력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과정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간단히 손쉽게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보다 큰 관심과 함께 많은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대책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처들이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마련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